

Do not weep for me, but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산호세 한인 성당 성령 기도회

3

주 제:	“믿음과 평화”	“부활 제 2 주일”	2008년 3월 30일
복음 묵상:	[요한 20,19-31]	[사도 2,42-47]	[1 베드 1,3-9]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부활한 주님을 직접 내 눈과 손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토마스의 말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는 우리 현대인의 생각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어도 믿으라는 말이다. 사람이 무엇을 경험해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

세상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살아가는 근거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그것을 증언한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영원한 생명 곧 하느님 곁에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이방인은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 없기에 항상 완전히 정착할 곳을 생각하며 길을 가고 있다. 길을 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고통,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전주 송년홍 신부님 강론 중에서)

+ 복음 [요한 20,19-31]



1분 명상

"의심과 믿음" "

'Doubt sees the obstacles, faith sees the way; doubt sees the blackest night, faith sees the day; doubt dreads to take a step, faith soars on high; doubt questions, 'Who believes?' Faith answers I.'



의심은 장애물을 보고,
믿음은 길은 봅니다;

의심은 칙흑의 밤을 보고,
믿음은 밝은 대낮을 봅니다;

의심은 발걸음 떼기를 두려워하고,
믿음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의심은 묻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믿음이 대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